



“아이들에게 우리 음악의 멋 알리고 싶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구연동화극 '신나는 국악여행', 23~25일 광주문예회관 극단 얼·아리 양태훈 대표 연출, '별주부전'·'심청가'·'흥보가'·'수궁가' 등 무대

최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새로운 공연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연습실을 찾았다. 연습실 앞에 도착하자 들리는 것은 국악기 연주 소리가 아닌 대사였다. 궁금한 마음에 문을 열어 관현악단 앞에 선 두명의 배우들이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연기자들은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 읽었을 법한 '별주부전'의 주인공인 토끼와 자라로 변신했다.

그리고 얼마 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이어졌다. 가야금, 피리, 해금 등 다양한 종류의 국악기들은 한데 어우러져 웅장하고 신명나는 음악을 선사했고, 연습이지만 한 편의 공연을 본 듯 한 기분이었다.

우리음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 '5·18 기념음악회', '청소년 협연의 밤'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 왔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한상일)이 창단 후 27년만에 처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색다른 형식의 기획 공연을 준비했다. 제127회 정기연주회 '구연동화극 신나는 국악여행' (23~25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은 극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듣기만 하는 관현악에서 벗어나 관객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이 구역의 미친 녀는 나다'로 제34회 광주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2014년에는 '발톱을 깎아도'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실력파 극단인 얼·아리 양태훈 대표가 연출로 참여했다. 또 김경숙·이성미·노희설·노은지·송민중 등 지역에서 활동중인 배우들이 출연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밖에 극본은 김경숙 작가가, 음악은 장태평 작곡가가 맡았으며 안무와 노래지도는 각각 광주시립창극단 무용부 한명선 상임수석과 임주

신씨가 담당한다.

이날 연습실에서 만난 한상일 지휘자는 "지금까지 국악관현악단은 기악으로만 관객과 만났다"며 "이번에는 좀더 확장해서 장르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과 만나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심, 핵심, 형제간 우애 등 작품이 전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통해 아이들이 한 뼘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연친화적인 국악기들이 어우러져 어떤 소리를 내는지, 또 국악기가 배우들의 연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눈 여겨 보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공연을 보고 국악기와 친밀감을 느낀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은 아침에 일어나보니 자라의 모습이 되어 있는 주인공 민서가 '별주부전'의 자라가 아니며 의심하는 토끼를 만나 동화 나라를 여행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민서는 자신은 자라

가 아니라며 엉덩 울고 토끼는 민서의 등껍질에서 국악기 소금을 발견하게 된다. 민서와 토끼는 그 소금을 가지고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속으로 국악 여행을 떠나게 되고, 여행 중에 펼쳐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는 재미와 유쾌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더불어 국악기를 알리기 위해 관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코너들도 함께 만날 수 있어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양태훈 대표는 "국악과 함께하는 공연이 처음이라 낯설었다"며 "얼·아리 활동을 하면서 음악극 등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국악과 국악기를 배워간다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작품을 통해 국악기 소리를 알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우리 전통 악기 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아이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우리 국악기

를 보고 음악을 듣는 것 만으로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지휘자는 또 이번 공연을 레퍼토리로 해 매년 무대에 올릴 생각이며, 내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무너지는 지구에 대한 경각심을 전하고자 '환경음악회' (가칭)을 열 계획이다. 현재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 이를 주제로 한 곡들을 제작해 영상과 함께 무대에 올려 관객들에게 환경 보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것이다.

"네 개의 작품을 1시간 내외로 선보이는 공연이라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를 보완해 다음 공연에서는 좀더 완성된 작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 작품을 시립관현악단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성장해 광주·전남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모두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 1만원, 어린이 5000원. 문의 062-415-540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오는 23~2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구연동화극 신나는 국악여행'을 선보인다. 사진은 공연 연습 장면.

國樂

여름 무더위 날릴 '힐링 국악한마당'

광주시립창극단, 17일 쌍암공원 야외무대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유영애)이 17일 오후 5시~8시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 야외무대에서 '힐링 국악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만난다. 코로나 19와 무더위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은 한국무용, 민요, 단막창극, 판국 등 국악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오후 5시 공연은 '길놀이'와 '비나리'로 문을 연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와 함께 앞날의 행복을 기원하며 인간을 끼고 도는 횡액을 막아주고 수명과 명복을 기원하는 '비나리'가 이어진다.

다음순서로 신비롭고 섬세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여성의 아름다운 자태와 섬세함을 표현한

'교방무'가 무대에 오르며, 이어 민요 '신밧노래, 동해바다', 무용과 타악의 만남 '동락' 순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동락'은 올해부터 광주시립창극단이 선보이고 있는 새로운 레퍼토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오고무와 대북, 모듬북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이다.

오후 8시 공연에서는 '동락'과 민요 '신밧놀이, 동해바다'와 더불어 단막창극 '놀보와 마당쇠', '판국'과 '버꾸춤'을 만날 수 있다.

단막창극 '놀보와 마당쇠'는 기존 판소리 '흥보가'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각색한 작품으로 흥보와 자식들을 내쫓은 놀보가 마당쇠에게 글을 가르치며 벌어지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묘사한다.

공연의 대미는 '판국'과 '버꾸춤'으로 장식한



광주시립창극단이 17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 야외무대에서 '힐링 국악한마당' 공연을 펼친다.

다. 우리나라 대표 연희놀이인 '판국'과 함께 손에 버꾸를 들고 다양한 춤사위를 펼치는 '버꾸춤'으로 막을 내린다.

무료 관람.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치되며 우선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문의 062-526-036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인도네시아 수공예 '바틱'

'아시아 이색 문화체험'

ACC 특별투어, 17일~11월

전문 해설사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간을 둘러보며 아시아의 색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은 오는 17일부터 11월까지 매달 다른 주제로 ACC 야외 권역을 산책하며 아시아 각국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ACC 특별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프로그램은 'ACC 녹지심 투어'. 17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오후 2시 30분과 4시 30분 두 차례씩 모두 10차례 진행된다. 참여자는 ACC 야외공간에 숨겨진 계절별 나무와 꽃의 의미를 해설사에게 들으며 문화정보원 녹지대를 산책한다. 이어 라이브러리파크 대나무정원에서 태국 치앙마이와 전통 제작기법을 활용해 공책과 수첩 등을 만들어 본다.

8월에는 민주항쟁 구역을 살펴본 뒤 인도네시아 수공예 기술로 제작한 바틱천을 이용해 작은 지갑 등을 전문가 도움으로 제작하는 기회를 갖는다.

9월 참가자에게는 어린이문화원의 옥상정원을 탐방하고 태국 그라롱(소원향초)을 만드는 추억을 선사한다. 잎과 꽃으로 소원 바구니를 장식하고 향초를 꽂아 나만의 향초를 갖는다.

이어 10월은 예술극장과 하늘마당에서 인도 전통요가 기원과 동작을 배우며 명상을 즐기는 치유의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11월에는 전당의 녹지심 구역을 산책하고 아시아권 각 나라의 차 문화를 알아본다.

ACC 누리집에서 프로그램 참가 예약. 문의 062-601-405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성악콩쿠르 심사위원 모집

'2021 광주성악콩쿠르'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광주문화재단은 국내 콩쿠르 최초 공개모집을 통해 광주성악콩쿠르 예선 심사위원 21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은 1·2차 예선 등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예선 심사를 진행한다.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음악대학 재직 및 출강 또는 활동경력 10년 이상 음악계 종사자 또는 경력자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오는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본선 심사는 콩쿠르 추진위원회 추천을 통해 심사위원 10명을 별도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2021 광주성악콩쿠르'는 1위 1500만원 등 총 38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지급한다. 광주 출신 중국 3대 항일음악가 정윤성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성악콩쿠르는 오스트리아 국립오페라극장 전속 성악가로 활동한 심인성(베이스, 1996년) 등을 배출한 바 있다.

문의 062-670-7442. gjcf338@naver.com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